

[ARKO X 널 위한 문화예술]

‘청년 예술가’는 누구인가? 신진-, 신생-, 청년-

- 진행 | 권태현, 이지현
- 패널 | 남다현, 이연숙(리타), 홍민키
-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일시 | 2024년 9월 5일(목) 16:30~18:00



이 문서는 2024년 9월 5일(목)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2024 ARKO 영아티스트데이> 행사에서 진행된 토크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수록된 글의 저작권은 진행자와 패널에게 있으며, 사진의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에 있으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권태현: 오늘의 주제는 ‘청년 예술가는 누구인가’입니다. 미술계에서 청년은 청년 예술가, 신진 예술가, 이머징 아티스트(Emerging Artist)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호명됩니다. ‘신생’ 공간과 같은 특이한 말도 있고요. 왜 일반적인 예술 지원이 아니라 청년 예술 지원이라고 하는 게 따로 필요하지? 물론 청년들을 더 챙기기 위한 행정적인 방향성이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에서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영아티스트데이 협력 큐레이터로 제안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이러한 질문부터 들었습니다.

대학교 농촌봉사활동(농활)에 가면 농촌 청년회분들이 다 60대예요. 거기서 50대면 완전 YB죠. 청년의 기준을 우리가 좀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미술이나 예술계에서 청년 혹은 새로움이라고 하는 개념은 깊게 고민해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술계가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동하며 작동하는 긴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2024년의 한국, 프리즈 3년차의 서울이라는 맥락에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 토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현: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벼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스스로 여러분들은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홍민키: 청년 전세 대출이 만 34세 미만까지 대출받을 수 있더라고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청년 작가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억압이 오히려 청년이라고 표명되는 사람들을 위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청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청년이 아닌 사람들이 자신들과 구분 짓기 위해 청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청년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 같고, 당사자 입장에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어떤 식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꼬리표 같아요. 그래서 청년이 나를 위한 단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리타: 지금은 청년이라 불리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잉여, 루저 같은 단어가 비슷한 용례에서 쓰였어요. 사실 항상 있었던 담론이거든요.

1990년대에도 이러한 담론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이라든지 대학에서 일을 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밖에서 공부하는 지식인들더라 ‘언더그라운드 지식인’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이걸 지금의 청년처럼, 어떤 시대를 진단하기 위한 용어가 아니고 어떤 정체성의 지향성을 말하는 용어라고 생각해요. 1990년대 말에는 막 등장한 소비 문화,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과 함께 젊은이들의 열기, 저항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신세대, X세대, 언더그라운드 같은 단어를 썼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잉여와 루저와 같은 단어들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요즘의 청년의 용례랑 비슷하죠. 잉여 인간의 줄임말인 잉여는 1950년대 손창섭의 단편 소설에도 등장하지만, 취직 못하고 방구석에서 디시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를 하고 만화책을 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세대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청년은 더 이상 한국 문학에 등장하는 풋풋하고 생명력 넘치는 주인공이라기보다 젊은데 나약한 사람들을 뜻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죠. 386세대의 청년 시기와 비교하자면 그건 사실이기도 하고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냥 쉬는’ 대졸 청년들이 406만명이라고 해요. 미래도 없고 취업도 안 한 사람들이 곧 다 청년인 거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 세상이 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냥 쉬기’를 택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청년 세대의 위축을 구조적 불평등의 결과로 보고 분석하기도 하고요. 청년이라는 단어가 이런 방식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저 스스로 청년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제가 결정하는 부분이라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청년을 호명하고 정의하려 하느냐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이런 세상에서 미래도 없고 직업도 없는 사람들이 청년으로 간주 된다면 당연히 우리 대부분은 청년에 속하겠죠. 어떤 처지를 가리키는 용어일 뿐 나 자신을 정체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다현: 청년을 풀어 설명하면 푸르른 나이여야 하는데, 푸르다는 표현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일동웃음) 이제 안 푸르른 것 같거든요? 청년의 기준이 39세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권태현: 아르코의 기준이 39세예요.

남다현: 숫자 39는 청년이란 상태에 대한 고려보다 언어적인 관습에 의해서 결정된 것 같아요. 마흔이면 불혹이고,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청년으로 보고자 39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나라에서 볼 때는 제가 청년이겠지만 사실 저는 스스로 점점 청년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그냥 낙엽이 될 것 같은... (웃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태현: 저는 민키 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삼 깨달았어요. 스스로 “나 청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본 적이 없거든요? 청년이라는 말은 청년들이 스스로를 부를 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고, 항상 청년이 대상화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을 민키 님 이야기에서 깨달았어요.

홍민키: 얘기를 조금 덧붙이자면, 다른 의미로 말하면 리타 님의 이야기와 좀 섞어서 청년으로서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치기, 패기, 무모함과 같은 식으로 대변되던 단어가 빼앗긴 게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그만큼 가능성과 도전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의 열정과 가능성 자체를 우리가 아닌 누군가가 청년이라는 틀로 만들어버려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만한 구심점이나 아젠다 같은 것들을 오히려 제압해 버리는 것 같아요. 결국 청년으로서 나의 단어를 빼앗긴 상태에 가깝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지현: 남다현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39세라는 나이를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술계에서 실제로 청년 예술가라고 설정하는 기준이 만 39세인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리타: 홍민키 작가님 말씀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만 39세에 제한을 둔 청년 예술가를 위한 지원 제도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해졌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게 사실 없는 개념이고 지원금을 운영해야 해서 만든 개념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

든요. 나이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남다현 작가님께서 더 얘기해 주시겠지만 39세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곳에서는 34세라고 하고, 39세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단지 기금 운영을 위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청년을 나누고, 청년 예술가라는 개념이 발명된 것이죠. 그 안에 내용은 나중에 채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 국가와 사회 전반적인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안에서 청년은 도와줘야 할 대상이기도 하고요. 지원금을 줘야 하는 대상이고, 수혜 받아야 하는 약한 존재들이죠. 1990년대에 특히 활발했던 문화 연구에서 말하는 저항이나 대안으로서의 하위 문화, 반()문화 같은 가능성들이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는 환경이기에, 청년들은 불쌍하고 도와줘야 하는 존재로 타의적으로 전락했다고까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권태현

권태현: 아르코의 기금 시스템이 가진 모순이 올해에 있었는데요. 청년 예술가 지원 말고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예술 지원 사업의 이름이 창작 산실이잖아요. 창작 산실에도 시각 예술, 다원 예술, 무용 등 분야별로 있죠. 그다음은 ‘청년예술가도약지원’이에요. 방금 리타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 예술가들은 아직 도약하지 못했으니까 도약해야 하는 사람들로 보는 시선이 거기에 있죠. 진짜 모순은 청년예술가도약지원 공모가 훨씬 더 경쟁률이 높았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창작 산실에 지원했다면 선정될 법한 기획서인데, 청년예술가도약지원의 경쟁률이 높아서 떨어지는 모순이 생기죠. 역량이 좋은 청년 예술가 중에서는 멋진 걸 만들 계획이 있어서, 50~60대 선생님들과 같이 창작 산실에 지원

해도 붙을 만한 기획서들이에요. 그런데 몇백 대 일의 경쟁률이라 다 떨어진다 말이에요.

이건 행정적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술 경영 담론 안에서 생애주기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지원 시스템으로 각광받기 시작했어요. 청년, 중견, 원로 이렇게 생애주기별 지원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가 행정 용어로 혹은 예술 경영 용어로 중요한 담론으로 떠오른다고 감지했어요. 궁금해요. 어떤 예술 경영 담론에서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지현: 태현 님의 이야기에 이어서 지원 제도의 기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백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민키 작가님께서 조금 전 대기실에서 얘기해 주신 게 있었어요. 청년의 다음 스테이지로 중견이라는 단어를 써왔어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 조건이 화려한 청년 정도인데 그 사이에 약간 공백이 있는 작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요?

홍민키: 저는 다행히도 청년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중견 작가 지원 사업을 찾아보지 않았어요. 이번 토크를 위해서 들여다봤는데요. 청년 지원 사업이 만 39세까지만 지원이 가능한데, 청년 다음에 중년이라고 보통 부르는 중년 지원 사업에서는 중년 지원 사업이 없었어요. ‘중견’ 지원 사업이 있었죠. 즉, 만 40세 이상부터만 지원이 가능한데 미술계에서 경력을 10년 쌓았던 것을 증명해야 하더라고요. 만약 청년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미술을 뒤늦게 시작한 경우, 지원 사업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거죠. 10년이라는 기간은 사실 굉장히 길잖아요. 저는 거기서 쓰는 워딩들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광받지 못한 중년 작가를 위해서’와 같은 표현이 있는데, 사실 저는 10년간 작업을 해온 사람들이 각광받지 못해서 필요한 지원 제도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들을 호명하는 언어가 굉장히 시혜적이죠. 청년뿐만 아니라 중년 작가들에게도 지원서를 쓸 때 일종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페어퍼 워딩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창작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 제도를 수용하는

느낌이라기보다, 이게 없으면 걸음마를 뺄 수가 없다거나 중견 지원 사업조차도 이게 없으면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들죠. 국가 자체가 창작자들을 일종의 시혜적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모사업의 문장들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느꼈기 때문에 나이로 무언가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왜 필요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태현 님의 말을 통해서 또 느낀 것은, 청년 지원 제도와 일반적인 전시 지원 제도 및 창작 지원 제도의 지원 내용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 또한 똑같아요. 근데 이 똑같은 과정을 위해서 대학 입시에서 전략적 지원을 하듯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올해는 청년 지원 경쟁률이 낮을거라고 생각해서 지원했는데 날짜 잘못 골라서 강탈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원 제도에 목매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혼선을 주는, 오히려 불필요한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원 제도를 필요해서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으로서 이게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위한 고민하는 시간보다 돈이 필요해서 문서를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까지 접어드는 것 같아요.

리타: 저는 민키 님 말씀에 이어서 생애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생애주기가 왜 제도에서 이렇게까지 잘 활용되는지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젊은 사람들을 생산이 가능한 인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아기를 낳고 기르고 가정을 꾸리고 국가에 이바지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청년 예술가들도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죠. 청년을 지나고 중년이 된 많은 40~50대 작가님들을 실제로 만났을 때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혹은 “퇴물이니까” 이런 말씀을 농담으로 하시는 거를 많이 듣게 돼요.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않을 거라는 걸, 그냥 웃자고 하는 자학이라는 걸 알지만 속상한 일이죠. 바늘구멍 같은 비율을 뚫고 소수의 작가들은 해외에 나가 승승장구하고 작업을 많이 팔고 이름을 남길 수 있겠지만, 이 건 그 소수의 작가들에게 수많은 인적, 물질적 연결망과 경제적 지원이라는 기회가 과잉 집중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예요. 예술은 물론 ‘초인’이 되기를 독려하는 분야지만, 기회의 분배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 건 사실

개인의 능력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목받지 못하고 눈에 띄지 못한 성과를 제때 내지 못하면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할 거라고, 이대로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죠. 이러한 사고 방식에서 우리 자신도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되어요.

지원금 제도가 참 득과 실이 있지만, 저는 지원금 제도의 시스템이 계속해서 이러한 사고를 우리 자신에게 재생산하도록 만드는 것 같다고 느끼고, 이거야말로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젊은 작가의 지원금이 많은 이유는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까 투자하겠다는 식이죠. 반면 중년 작가들은 더 이상 발전 가능성도 기회도 없으니까 그냥 도와준다는 식이 고요. 이런 사고방식을 지금 지원금 제도가 고스란히 내재하고 있어요. 지금 프리즈 같은 큰 행사도 있지만, 이렇게 가면 젊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가능성을 우리가 다 소진했을 때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어떤 작업을 또 하게 될지가 저에게 무척 큰 문제로 다가와요. 그래서 지원금은 물론이고 국가 정책 자체가 의존하는 생애주기가 그렇게까지 유용한 개념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40대에 작업을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20대의 시간을 ‘잉여’처럼, ‘쓰레기’처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죠.

홍민키: 한 문장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92년생, 만 32세거든요. 만 39세가 몇 년 남았는지 카운트하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체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원하는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걸 알아요. 근데 지원제도에서 39세라는 게 딱 정해지는 순간, 이건 마치 시간표 같은 거거든요. 이 안에 주목받거나 기회를 얻지 못하면 재개할 가능성이 없다는, 국가가 지정해 놓은 시험 날짜 같아 버리니까 다시금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다현: 나이를 기준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보다 개인의 소득 수준, 개인 병력, 언어적 장벽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청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만 곱씹어보면 이상한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시골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 청

년회장님이 39세 이상이세요. 39세 나이를 계속 고민하는 것보다 세분화하여 소득 기준 등으로 국가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태현: 남도현 작가님 남양주에 살면서 시골인 척하는 거 약간 기만 아닌가요? (일동웃음)

남다현: 먼 곳이 아니라서 남양주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도시가 되게 드문드문 있어요. 저는 울석리라는 곳에 살고 있거든요.

권태현: 리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다현: 고양어 인구가 더 많아요. (일동웃음)

권태현: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서울 중심성이라고 하는 문제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득 수준과 외국인 국적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나이 혹은 젊음, 청년 혹은 세대론이라고 우리가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예를 들면 20대부터 39세 까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그 나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 지원금을 받아? 거지야? 이렇게 생각하는 금수저들이 있을 수 있고, 고작 3천만 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기획서를 쓰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3천만 원이 너무 작은 돈일 수 있죠. 세대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안에 엄청난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적 문제라든가, 서울에 사는지 서울에 살지 않는지, 대학을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 석사를 가졌는지 아닌지,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돈을 가졌는지 아닌지...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계급 문제를 나이로 압축시켜 버리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규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다현: 나이로 지원을 받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소득이 필요한 사람 혹은 작업을 이어가고 싶은 사람 크게 두 종류라고 보거든요. 청년은 청년

인데 재벌집 자녀들도 지원 사업에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과연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지현: 이 점을 누구보다 고민하는 곳이 아르코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많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지금 제도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벗어나서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 90년대생이잖아요. 지금 세대만의 특징이라고 보는 게 각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리타: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날 청년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젊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불안정 고용과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그러므로 늘상 불안과 위기에 처해 있는 무산 계급이 많이 속해 있는 범주가 또 청년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연구자들이 이전 세대의 청년과 구분되는, 소위 ‘MZ’ 청년이 가진 특징으로 불안정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상태를 꼽습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제니퍼 실바 같은 학자는 『커밍 업 쇼트』라는 책에서 청년 세대가 ‘어른이 될 수 없다’고 느낀다는 점을 예리하게 포착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결혼식 같은 통과의례를 치르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아야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기도 했을 거예요. 199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이행하기 시작했다고 봐야겠지만, 이제 이러한 통과 의례들은 더 이상 어른의 지표로서 기능하지 않게 되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통과 의례를 치러봤자 예전 부모님 세대처럼 뭔가를 노력한 만큼 얻을 수도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게다가 그 세대가 너무 힘들게 살아온 걸 목격하기도 했잖아요. 자발적으로 참고할 만한 삶의 롤모델이 없는 셈이죠. 어떻게 하면 ‘다른’ 어른이 되는지는 모르는 채로, 계속 성장 중이기만 한 세대예요. 기존 어른들의 가치는 전부 눈앞에서 붕괴했고, 그렇다고 다른 어른이 될 수도 없는, 한 마디로 ‘어른이 없다’는 것이 우리 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아닐까요.

이지현: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태현: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내 나이대에 이미 아이를 한두 명 갖고, 이미 집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독립된 3인 핵가족을 꾸릴 수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제가 90년생, 34살이거든요. 한 세대 전만 했으면 34세는 이미 독립해서 완전히 독립적인 가정을 꾸릴 때죠. 근데 지금의 저는 자취방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부모님과 계속 있기 싫어서 이상한 오피스텔을 구해서 작업실로 쓰는 정도로 겨우 지내요. 진짜 어른이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하게 만들어요. 애를 낳으면 되나? 애를 어떻게 낳지? 결혼은 어떻게 하는 건가?

남다현: 어른이 될 수 없다는 리타 님의 말에 동의해요. 19세 이상을 말하는 성인과 어른은 다르잖아요.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하고 자녀가 있고 집이 있으면 어른이 되는 거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시선과 기준에서는 어른이 될 수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민키: 비슷한 내용인데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오픈리 쿼어, 그러니까 게이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없었잖아요. 저는 2012년 성인이 되는 시점에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했는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개인적으로 MZ세대라는 표현을 오히려 반기는 편인데요. 어떤 면에서 제 멋대로 산다는 의미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환영하는 편이에요. 어른이 될 수 없다는 말만큼은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른이라는 생애주기에서 수행해야 하는 삶의 역할과 사회적 책무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삶의 형태를 선택하고, 내가 상상하는 가족의 형태를 꾸려나갈 거라는 태도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의 존재를 분명히 세대적으로 인지하고 있죠. 그들의 존재를 그전까지는 일종의 통제 대상 혹은 검열해서 짓눌러야 하는, 가둬 놓고 재교육하고 재사회해야 한다고 여겼어요. 반면에 지금은 MZ라고 말했을 때 무언가 새로운 게 등장을 했다는 다름을 인정하는 단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X세대 혹은 그 이전 세대를 칭하던 것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MZ세대라는 표현 자체가 갖고 있는 호명 자체를 환영하는 바이고, 더 많이

유통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더 제멋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권태현: 맞아요. 그런 MZ세대를 맘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SNL에서 일할 때 헤드폰을 끼고 있는 사람들로 표현되기도 하잖아요. 저도 민키 님 의견에 완전히 동의해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사실 나쁘지 않죠. 슬프게도 젠지를 96년생부터라고 하더라고요. 전 진짜 젠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90년대생이 온다의 느낌으로 물어가고 싶어요.



이지현

이지현: 90년대생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10년이 너무 폭이 넓기도 한데, 사실 저희 나이가 1~2살 차이로 오밀조밀 모여 있어요. 지금 30대 초중반의 시점에 가지고 있는 비슷한 고민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 얘기도 시간이 된다면 나눠보고 싶네요.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밌는 게 보통 <예술탐닉>을 촬영할 때 스튜디오에서 하기 때문에 관객이 없거든요. 근데 관객이 계시니까 앞에서 아주 미묘하게 끄덕이는 게 느껴져서 지금 신기하네요. 아마 지금 객석에서 품고 있는 질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권태현: 좋아요. 후반부에 객석 질문도 받을 테니까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준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계에서 청년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기회와 동시에 제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그런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리타: 청년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기회와 제약이라고 했을 때 뭔가 기금에 대한 이야기 인가요?

이지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권태현: 청년이라고 해서 따로 자리를 만들어줄 때가 있죠. 미술 시장에서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리타: 저는 청년이라는 타이틀이 젠더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성을 가리키는 말로 오랫동안 통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 번도 청년이라는 단어에 소속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예를 들면 1930년대 쓰여진 심훈의 『상록수』와 같은 소설... 제가 너무 옛날 소설 얘기하나요? (일동웃음) 한국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설들에 등장하는 고뇌하는 남성의 형상에 붙여진 이름이 항상 청년이었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 이름이 가진 기회와 제약에 대해서는 분석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 스스로 청년으로서 받은 기회와 제약이라고 한다면, 무슨 기회가 있었더라? 어떤 제약이 있었더라? 하고 금세 또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각자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니까 기회라고 했을 때 그려지는 상황이 저는 없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남다현: 청년이라는 단어와 구분은 정치인 선생님들을 위해 용이하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관료주의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청년을 지원했다는 성공 사례가 상부에 올라가면 정치인들은 그 성과로 유세하겠죠. 청년들이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고 어필할 수 있는 키워드가 청년인 것 같아요. (일동웃음) 그렇지 않아요? 저소득층 지원을 얘기하면 좌파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일동웃음) 청년은 중위적이고 무미건조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쉽죠.

제가 캐나다에 오래 살다가 왔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때 청년이 아닌 원주민, 저소득층 등으로 나누어 지원을 해요. 정치인들도

이러한 지원을 유세할 때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아요. 그래서 한국의 청년이라는 구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상부에서 그들이 편하기 위해서 혹은 언론에서 좋은 키워드 하나 뽑을 수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권태현: 그렇죠. 굉장히 탁월한 분석인 것 같아요. 청년 지원을 했다고 하면 좌파 같지도 않고 그런 게 있잖아요? 아까 캐나다는 청년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리타 님이 짚어주신 것과 엮어서 보면 흥미로운 국면이 있어요. 청년의 계급화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칠 지난 말이긴 한데 ‘88만원 세대’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88만원 세대의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흥미로운 담론으로 여겨졌던 건 원래 사회학 혹은 정치경제학에서는 세대론과 계급론이 상반되는 것처럼 바라봐요. 세대론은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근본적인 차이를 마치 나이로 통 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근데 평균 소득이 88만 원이라는 건 계급적인 문제잖아요? 세대론과 계급론이 이상하게 뒤섞이는 국면을 진단해 내면서 88만원 세대가 흥미로운 사회학 담론으로 여겨졌었던 거란 말이죠. 그런 맥락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리타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는 문제를 세대론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대가 계급화되는 문제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타: 앞서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전 세대에 가능했던 사회적 구조의 답습조차 불가능한 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서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집을 살 수가 없죠. 누군가는 가족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는데, 집이 없으니까 가족도 못 만들죠. 다른 세대에 속한 분들께서는 이런 경험과 감각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년 세대는 제 힘으로 쟁취한 게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쟁취해봤자 어차피 그 돈으로 집은 못 사죠. 취직한 제 친구들 소위 ‘이백층’이거든요. 이백층은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일단 신입 사원이 되면 200만 원으로 시작한다는 건데...

권태현: 그런 말이 또 생겼군요.

리타: 저만 쓰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다들 쓰시더라고요. 어쨌든 집세를 내고 밥 먹고 하면 사실 수중에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하루 미래 없이 살아가는 상황에서 무슨 놈의 재생산이 가능하고, 삶의 영위가 가능하고, 예술이 가능한지, 정말 어려운 얘기잖아요. 청년 세대를 사회학적 용어로 ‘88만원’ 세대 혹은 ‘프레카리아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냥 힘들어서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가 더더욱 힘들어질 거라는 걸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더 양극화가 심화되고 다음 세대는 훨씬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낭만화에서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한 담론이겠지만, 왜 청년 세대를 우리가 나이로부터 분리해야 되고 이들의 소위 징징거림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느냐면, 이 모든 게 계급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지현: 뭔가 민키 작가님이 깊은 생각에 빠지셨네요.

홍민키: 질문을 조금 돌아가고 싶은데요. 제가 이해한 질문으로 다시 대답을 해보면, 청년이 아니라 청년 예술가로 포커스를 좁혀보고 싶어요. 저의 삶의 경험을 먼저 이야기해 보자면, 졸업 이후에 전업 작가가 되는 건 작가로서 일종의 로망이잖아요? 작업을 하면서 작품을 팔아서 먹고살고 싶으니까요. 근데 그건 당연히 소수자에게만 주어진 기회여서 나의 생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요. 현실적인 생존의 이슈니까요.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알바몬에 나이를 입력하니 지원 가능한 알바가 순식간에 반토막이 되었어요.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규직을 하는 건 사실상 그때 당시에 너무나 두려웠어요. 한창 무언가 열정적으로 작업을 뽑아내고 싶은데 이 시간을 다른 곳에 소모적으로 쓰고 싶지 않아서 파트타임 일을 구하려고 했던 건데, 내가 그전까지는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못 하게 되는 순간 생각했어요. ‘아 망했다! 어떻게 살아 남아야 되지?’ 아까 말했던 39세,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유효기간

까지 10년이나 남았고 이 시간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밥벌이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해오던 파트타임 일을 더 이상 지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내가 기피 하고자 했던 취업 시장에 뛰어 들어가 보면, 30세는 나이가 있는 경력 없는 신입 사원인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신입 사원을 뽑을 때 당연히 나이를 보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늦은 상태죠. 무경력인데 30살이 될 때까지 뭐 했냐고 면접관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술 했다는 답변은 통용되지 않는 언어죠. 그래서 저는 딱 30살이 되는 해에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저는 20대 졸업하던 시점에 왜 30대 중반을 넘어가면 작가들이 다 사라지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사실 친분도 없는데 작가님께 가서 왜 갑자기 포기하셨어요? 라고 물어 볼 수 없죠. 근데 30살이 되어 경험하면서 깨달았죠. 취업도 못해, 알바도 못해, 근데 작품도 안 팔려... 난 어떡하지? 딱 그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홍민키

그래서 저는 청년예술지원사업이 독배와 같이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면 다음 해에도 당연히 필요한 돈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마시면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올해 천만 원을 써서 작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내년에는 천오백만원을 쓰고 싶어요.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 자본이 없어서 못 만들었던 작업이었는데 재원이 있으면 이러한 작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순간 나의 상상력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원금을 계속 들여다보게 돼요. 결국 지원금을 받게 되는 사람이 올해 받았다고 해서 또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적으로 기금 공모를 기다리다 올해 탈락했을 때 1년이 사라

저요. 30살부터 39살까지 9번의 기회가 있는데, 한 번의 기회를 상실하면 나머지는 8번의 기회가 남은 거죠. 그렇게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시간이 아니라 횡수로 생각하게 되고, 횡수는 채 10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포감으로 다가와요. 작가로서의 생존이 작품의 좋고 나쁨이라는 단어보다, 내 작업의 자신감 혹은 자존감의 이슈가 아니라, 내 삶이 횡수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축돼요. 내 작업이 내가 탐구하고 싶은 작업이라기보다 횡수를 따먹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럴 확률이 높다는 생각으로 이어져요.

리타: 들으면서는 저는 이게 기회라고 포장은 되지만 사실은 제약에 가까운 것 같다고 이해했어요. 계속해서 작업을 지원서 내는 시점에 맞춰서 디자인하게 되는 게 맞는지 생각도 들고요. 당연히 작업에 어느 정도 자원이 필요해서 지원금에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모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상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금 제도가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죠. 제가 2009년에 미술대학에 입학했는데, 기억하기로 그 당시에는 지원금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해당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주도적으로 지원금이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처럼 많이 쓰이기 시작한 거죠. 이제 지원금 제도 없이 작업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제도가 작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작가의 삶과 사고방식, 존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흥미로운 지점을 민키 님이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홍민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오기 좀 민망하지만, 지원금 헨터가 있어요. 작가들이 페이퍼 워크를 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느끼니까 대신 써주는 사람이죠. 지원금을 지원하다 보면 선정되는 페이퍼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쓴다고 해도 결국에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면접관을 위한 텍스트를 쓸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이걸 기가 막히게 잘 쓰는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전에 작가와 합의를 해요. 지원금 예산 중 일부 비용을 받고 지원금을 따주는 거예요. 헨터라고 불릴 정도로 조직화 되면서 지원

금이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작가들이 지원금 자체에 큰 영향을 받고,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더더욱 여실히 느껴요.

권태현: 헛터라고 하니까 조금 음모론이 같긴 한데요. (일동웃음) 당연히 기금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독배라고 말씀하신 게 탁월한 표현이죠. 근데 기금 제도라고 하는 게 세금으로 예술을 지원하는 말 그대로 제도니까요. 속된 말로 정권 바뀌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문화부 장관 바뀌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예술가들은 이 독배를 계속해서 마실 수밖에 없어요. 청년 예술가들에게 이 독배가 더 강력한 이유는, 우리 세대는 독배를 마시지 않고 작업을 하는 방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리타 님이 지원금 제도가 학부 때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서울에서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1,000~3,000만 원 규모의 전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 환경에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지원금 제도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혹은 90년대 초반생들은 ‘기금 네이티브’인 거죠. 애초에 활동 시작할 때부터 기금 없이 활동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요.

이지현: 굉장히 신선하네요.

권태현: 제가 방금 만든 겁니다. 아이패드 네이티브들이 TV도 다 만져지는 건 줄 알고 어항도 터치되는 건 줄 알고 그런다면서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기금 네이티브인 거죠.

리타: 기금 네이티브라니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중심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네요. 저도 최근에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 연구자분들과 얘기를 나누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통감하는 지점들이 아마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좀 걱정하는 지점들은 이런 거예요. 말씀하신 페이퍼 워크라는 게 관료주의적인 요구거든요. 작업의 질이나 결과물은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떤

형식에 맞춰서 써낼 것을 끊임없이 요구받죠. 결과도 정리해야 하고, 중간 정산도 해야 하고, 예산을 짜는 등 작가가 기획자처럼 모든 섭외를 전부 다 하게 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게 돼요. 공모에 붙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절차지만 괴로운 상황이죠. 그런 자승자박의 상황 속에서 작업을 또 해야 하는 건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스트레스는 각종 페이퍼 워크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이런 차원의 고통도 중요하지만 진짜 문제가 또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쓰는 거에 의해서 사고방식도 바뀐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내가 하겠다고 쓰는 글과 내 작업이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글을 쓰다 보면 영향을 받아 끌려가게 되잖아요. 올해 이번 작업이 먹힐까? 라는 고민을 하죠. 요즘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최근에 페미니즘 이슈가 있다 보니 페미니즘 이슈가 아니면 안 뽑아준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반대로 페미니스트라서 안 뽑아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들 경향성을 신경 쓰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올해 이번 기획이 될까? 작년에는 서울에서 신유물론, 페미니즘, AI 이런 주제가 너무 많았는데 올해 또 그걸 쓰면 안 될 거라는 식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전략들을 다들 짜고 있다는 거예요.



이연숙(리타)

저는 흥미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이것과 자기 작업을 거리 두려고 해요. 자신은 전략적으로 이런 상황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획서는 어차피 공모 기간에 한 번 쓰는 것에 불과하니까 앞으로 해나갈 작업과 상관없다고 막연히 생각하죠. 근데 기획서라는 게 몇 년 동안 축

적되면서 작가들의 작업하는 방식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아젠다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고 결국에는 서로서로 눈치 게임처럼 올해 이런 게 있었으니 내년에는 안 해야지가 되는 거죠. 정말 작가로서, 기획자로서, 연구자로서의 관심사는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지금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5년 뒤, 10년 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지원금 제도를 바꿔 더 이상 제도가 예전처럼 존재할 수 없다면,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우려됩니다.

권태현: 이거 진짜 많이 얘기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예술 작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행정적인 서류를 먼저 만드는 것이 예술가들의 작업 프로세스가 되는 거잖아요. 서류라는 포맷에서 벗어나는 어떤 예술의 힘, 이미지와 언어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애초에 가지고 있는 예술이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자체를 해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문제가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과 언어, 담론으로 다 수렴되지 않는 예술의 근본적인 힘이 있죠. 원래 예술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술계에서 무언가 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선행해서 언어화하고 심지어 행정적인 서류로 제출해야지만 무언가 만들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힘 자체를 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해요. 이미 그런 징후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 걱정되는 것 같아요. 청년 지원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지원 제도시스템을 우리가 한 번쯤 크게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민키: 작업을 하기 앞서 지원금 제도에 포섭되기 위한 과정에서의 페이퍼 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원금을 받는 입장에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은 많은 지점을 개선하고 있고 방향성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로 바로 들어가면 지원금은 1년 안에 자신의 성과를 보고해야 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원하고 심사하고 뽑고 선정돼서 실제로 돈을 집행할 수 있

는 거는 빨라야 6월이에요. 6월부터 12월 안에,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나의 작업을 무조건 보여줘야 하는 거죠. 제가 지난 10년간의 미술계 필드에서 전시를 보며 계속 느꼈던 생각은, ‘1년만 더 했으면... 조금만 더 시간을 들였으면... 더 더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작업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지원금을 통해 전시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업을 볼 때마다 느꼈던 갈증이 있었어요. 완성된 작업을 보고 있지 않다는 기분을 지난 10년간 계속 느꼈고, 독립성 확보를 고민해야 하는데 방법은 요원하죠. 우리는 계속 미완성인 작업만 보면서 그 미완성 속에서 누군가가 마치 인형 뽑기처럼 한 자리 쪽 뻗어 올라가서 그 사람만 완성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이 필드가 불편했어요. 부단히 다른 식의 필드와의 연계성과 확장성을 도모하고 싶어 저는 미술 안에만 있지 않았어요. 영화나 공연 쪽으로 몸체를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저의 노선을 조금씩 확장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권태현: 이런 이야기들을 밀어붙이면서 다양한 토론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객석에서 많은 질문들이 있는 걸로 보여요. 혹시 관객석에서 질문이 있거나 보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편히 말씀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가운데 먼저 손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객석 질문자 1: 안녕하세요.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두 가지 키워드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인구 고령화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지원 제도가 많은데요. 결국 청년 예술가들이 중견 예술가가 되고, 또 원로 예술가가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청년 예술 지원 사업에 많은 청년들이 몰리는 것처럼 10년 뒤에는 중견 예술가 지원 정책에 많은 중장년 미술가들이 몰릴 테고, 그 다음 10년 뒤에는 원로 예술가들에게도 경쟁이 몰릴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술 정책은 특정 많은 분포에 따라서 지원 정책을 펼치는데, 이것이 정말 공정한지 물음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체부의 예산안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문화예술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오늘 이러한 논의들이 발생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번 주에 2025년 문체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는데, 정

부 부처 중에 항상 꼴찌였어요. 체육, 관광 등의 부분을 제외하면 문화예술 분야는 반토막도 되지 않죠. 그럼 우리는 약 1.5%의 예산을 가지고 작가들을 지원하고 문화 시설을 건립하는데,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이라고 하지만 예술 정책 및 예술 지원에 너무 적은 예산이 항상 편성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남다현: 제 생각에는 노년층이 많아지고 청년 수가 적어지면 청년의 기준이 39세에서 49세로 바뀔 것 같아요. (일동웃음) 애초에 이게 큰 고려가 있는 그런 산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할 것 같고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홍민키: 방금 약간 상쾌한 기분을 느꼈어요.



남다현

남다현: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청년이라는 기준에 대해 말씀 해주신 것처럼 되게 초조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위에서 집행하는 선생님들께서 조금만 더 귀 기울이고 들여다보면 훨씬 더 세세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구조주의적으로 구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ntp니 뭐니 많잖아요? 차라리 MBTI로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일동웃음) 청년 지원을 세세하게 해야지 좀 더 효력이 있고 필요한 곳으로 갈 것 같아요. 지원을 받는 사람도 불안하지 않고요. 또 이게 전반적으로 다른 부처에서 급할 때마다 문화예술 쪽으로 활성화하잖아요? 그 자세도 물론

이해는 하겠지만, ‘너희 가난해서 이 정도 줄게 고마운 줄 알아’ 그런 뉘앙스의 지원하는 사람의 자세가 있다고 느껴요.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결과 갖고 와!’라는 마인드가 돌아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큰 시차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지원을 해주면 분명히 국가에 좋은 도움 될 거예요. 국가가 좀 더 강성해질 수 있도록 밑바탕을 깔아준다는 공감대 형성이 되고 그것을 토대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리타: 저는 국가 정책과 제도에 너무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그만큼 잃은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의 예로는, 제가 아무래도 페미니즘이나 퀴어 담론 안에서 많은 텍스트를 읽어온 경험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항상 이런 제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잃은 게 훨씬 많은 건 약한 사람들이예요. 저는 문체부가 예산안을 늘린다고 해서 과연 제가 옹호하는 예술 활동으로 예산이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국가가 케이팝 문화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으며 국위선양도 하려고 하죠. 또 프리즈 기간에 많은 해외 큐레이터도 와서 여러 가지 구경하고 가는데, 이게 저한테는 절대 질적 성장으로 보이지 않고 단지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만 보이거든요. 한국에 뭐가 있다는 홍보 문구가 그냥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는 먹고 있는 거예요. 문체부 예산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 저는 작은 파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남다현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저한테는 훨씬 중요한 지점이에요. 문체부 예산의 파이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더 좋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대답을 기대하셨을지, 또 제가 괜찮은 대답을 드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회의적입니다.

중장년 예술가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생애주기에 대한 어떤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한, 늙고 병든 사람들에게 이 사회가 그렇게 관대할까?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청년들이 40~50세 된다고 해서 갑자기 청년 나이를 사업별로 늘릴까? 물론 이런 건 말장난일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과 똑같이 생각한다면, 청년 범주와 관계 없이 뭔가를 생산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제와 혐오는 어차피 계속해서 존재할 것 같아요.

이지현: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을 번쩍 들어 오셨던 관객분께 혹시 마이크를 넘겨 줄 수 있을까요?

객석 질문자2: 안녕하세요. 요즘 사회에 어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에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왜냐하면 청년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로 성인이 떠올랐는데요. 솔직히 만 19세까지 살면서 나이 먹은 것 밖에 없는데 대체 무엇을 이룬 것인지 의문이 드는 단어입니다. 결혼이나 출산으로 어른이란 기준을 나눌 수 없는데 그렇다면 어른이라 부를 수 있고 또 청년이 아닌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권태현: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지현: 아까 리타님께서 어른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그러면 누가 어른인 것 같냐는 질문이 나왔네요.

리타: 사실은 우리가 청년과 어른, 이렇게 나누는 이분법 자체를 제고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세대엔 ‘어른이 없다’고 했잖아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괜찮은 일일수도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어른이라는 개념에 기대했던 게 뭐지? 라고 자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마 어른에게 책임감, 성숙함 같은 건강한 가치를 바랄 거예요. 하지만 바라는 만큼 실망도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어떤 사람한테 기대하고, 또 그 사람에게 실망해 비난하거나 책임을 지우는 것 대신에, 아예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이루는 관계 모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기존에 작동했던 성인, 청년 간 관계 모델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는데, 실은 소수자들은 그런 대안적 관계 모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성인과 청년 간 경계가 확고했던 전통 사회에 만약 제가 살았다면 숨이 막혀서 죽었겠죠. 아마도 저는 그런 사회에서는 성인이 되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꾸려야만 했겠죠?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소수자, 그중에서도 성소수자들은 그런 환경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주를 택한 경

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퀴어 이론은 오랫동안 정상 사회 기준에서는 자동 탈락할 수 밖에 없는 성소수자들을 아이, 청년 개념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어요. 또한 성인-청년 간 관계를 부모 자식 관계로 환원되지 않는 비생산적 사랑, 우정의 관계로 보기도 했었죠. 하여간, 이왕 이렇게 된 거 오히려 청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산적으로 전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디에도 어른 같은 건 없다고 시원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홍민키: 너무 동의해요. 지하철에서 어깨빵하는 할아버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내가 왜 저 사람을 어른 대접 해줘야 하는지 생각이 들어요. 사담이긴 했는데 아무튼 리타 님의 말에 동의해요. 저는 어른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이 성장을 멈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완전체가 되었고, 바뀌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는 완전해졌으니까...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위계적인 태도, 자신의 존재가 온건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한 너를 내가 폭력해도 된다는 태도로까지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덧붙여서 얘기를 해보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60대, 70대가 되어도 그 아래 나이와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도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도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니, 나와 너의 관계는 그냥 수평선에 있을 뿐인 거죠. 내가 그들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방금 리타 님의 말처럼 죽을 때까지 청년이라는 자의식을 갖는다면 그것을 다른 식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인 거죠. 그 말인즉슨 다른 사람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고 나도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을 판단하거나 타인의 삶을 재단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바탕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위계적인 상황을 벗어나면서 새로운 담론으로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다현: 청년, 어른, 중년, 노년.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딱딱딱 진화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포켓몬이 아니거든요. (일동웃음) 어떠한 나이인 너는

이만큼 성취해야 돼! 그거 아니면 너는 진화 못하고 끝! 해버리는 거죠.

권태현: 원래 주인공 피카츄는 진화를 거부하면서 더 강해지죠. 그게 우리 세대의 돌파구라고 생각해요. 피카츄가 돼야 한다... 어른이 될 필요가 없다... 꼭 라이츄가 센 게 아니에요! (일동웃음) 저도 피카츄가 훨씬 좋습니다. 지하철 어르신 얘기하니까 남다현 작가님의 자르반 84세가 생각나요.

남다현: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르반 84세는 지하철에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분 코스프레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멋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분의 자신감은 사실 저보다 더 청년이 아닐까? 생각해요.

리타: 맞아요.

권태현: 이 시대에 어른을 얘기하면서 자르반 84세를 빼놓고 갈 수가 없죠.

남다현: 청년이죠.

권태현: 맞아요. 그분이 진짜 피카츄죠. 살아있는 피카츄.



권태현: 기금 네이티브와 피카츄 등 오늘 몇 가지 키워드들을 도출해서 성과가 있는 토크였습니다.

이지현: 마지막으로 소감을 여쭙보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술탐닉의 공식 질문인데요. 오늘 토크가 어떠셨는지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토크 주제를 들으셨을 때 다양한 생각과 우려를 하셨을 것 같아서 한 분 한 분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남다현: 재밌었습니다. 이런 것도 해보고 복이 많네요. 결론이 나는 것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청년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원금을 나눠주는 쪽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민키: 이 자리에 앉게 됐을 때 저는 이런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마주할 지 상상을 못 했어요.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일 줄 알았는데 다루는 주제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또 내가 대표자로 나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런 생각은 떨칠 수 없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저는 유의미하게 얻고 가는 태도가 있어요. 리타 님이 던져주신 어른이 없음이 저에게 중요한 일종의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모두가 어른이 아니고 계속해서 청년으로서, 모두가 피카츄로 무덤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지하철에서 어깨빵 하는 80대 할아버지도 피카츄이고, 지금 나와 같이 여기 모여 있는 여러분들도 피카츄라고 생각하면 그들과의 관계가 산뜻해지는 기분까지 들어요. 그들은 그냥 피카츄인 상태인 거죠.

리타: 관대하게 볼 수 있는거죠.

홍민키: 네 맞아요. 그들의 태도에 대해 어른인데 왜 저래? 라는 일종의 분노 에너지가 아닌 저 사람은 피카츄다! 라고, 오히려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 얻고 갑니다. 어떤 태

도로서 참여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삶의 태도를 하나 얻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리타: 피카츄 발언.

홍민키: 피카. (일동웃음)

리타: 저는 사실 이 자리 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로 소통 문제가 있어서 서로 고생시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자리를 위한 어떤 푸닥거리를 벗고 또 며칠간의 프리즈 행사들을 다녀오며 느낀 점은 속도예요. 속도를 감당할 수 없죠. 나는 몸이 하나인데 너무나도 빠른 이 속도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 아는 사람, 신세 진 사람들의 전시를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발을 빼기 어려운 이런 속도감을 계속해서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전시 오프닝에 가면 오프닝 자리를 위해서 가는 것일 뿐 사실 전시를 거의 보지 못한단 말이죠.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속도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토크도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를 또 잘 나누게 되었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기금 네이티브 같은 이런 개념들은 되게 재밌었는데, 뭔가 천천히 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지현: 속도감에 대한 건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권태현: 다들 이야기를 흥미롭게 나눠주셔서 저는 배우다시피 들었습니다. 속도 이야기, 진화를 거부하는 피카츄 이야기, 기금 네이티브까지 우리가 성과를 남긴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 해요. 당연히 1시간 반 토크에서 이야기해서 무슨 결론을 낼 수 있겠어요? 여기가 정책 회의를 해서 무언가 결정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요. 민키 님이 잘 짚어주신 것처럼 청년을 얘기할 때 내가 여기서 대표자 격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지 의심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동료들끼리 수다를 떨듯이 남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프리즈 3년 차 중요한 맥락이죠. 특히 미술 주간이 올해는 또 미술 축제로 변했는데요. 미술주간, 아트위크가 아니라 커져서 미술 축제가 되었어요. 너무 많은 행사가 열리는 축제 기간에 아르코 영아티스트데이 행사를 하나 더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걸지 의심을 스스로 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는 미련을 가지고 마련하였는데요. 다들 불편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무언가에 대해서 더 진짜로 책임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했을 때 작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과 바깥의 문제도 같이 있고, 청년 세대 문제도 안과 바깥이라고 하는 역학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술 축제 한복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또 의의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지현: 속도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고 싶은데요. 이러한 속도 속에서 한 가지 불편했던 건 소수가 초대받는 파티들이 많았다는 거였는데요. 오히려 이번에 아르코와 함께 준비 하면서 좋았던 것은 누구에게나 최대한 많이 열려 있는 행사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안도와 편안함을 느꼈던 지점이 있어 기획을 총괄하신 태현 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토크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태현: 이것으로 오늘 영아티스트데이 행사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밖에서 네트워킹 파티가 계속 이어지니 나가서 즐기시고, 이따가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르코미술관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3
 02-760-4850
www.arko.or.kr/artcenter